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2018. 6. 11.(월) 조간	배포	2018. 6. 8.(금)	
책 임 자	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(02-2100-1730)		담 당 자	이 영 민 사무관 (02-2100-1722)	

제 목 : 금융정보분석원,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및 「최근의 여건 변화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」 발표

1 정책자문위원회 개요

□ 금융정보분석원(이하, FIU) 김근익 원장은 6.8일(금), 「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*」를 개최하여,

*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기구

○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와 관련된 FATF(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) 논의동향, 미국제재 등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공유하고,

- 동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FIU의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

< 제33차 정책자문위원회 개요 >

■ (일시/장소) '18.6.8일(금) 14:00~15:00 / 금융위원회 중회의실(16층)

■ (주요 참석자) 금융정보분석원장(주재), 정책자문위원, 관계전문가 등

2 주요 논의내용 (※ 상세자료 별첨)

□ 더욱 엄격해진 FATF* 상호평가, 최근 美 금융당국의 현지점포 제재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짐

*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로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구체적·세부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회원국의 제도가 동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(상호평가)

- 아울러, 뇌물·횡령 등 중대범죄를 조기적발·예방하고 해외 불법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FIU의 금융거래 분석기능의 중요성이 부각*

* 대통령께서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('18.4.18일)에서 FIU가 반부패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해나갈 것을 지시

□ FIU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국제 적합성을 제고하고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

- **(법·제도)** 전자금융업자 등 지급기능을 수행하지만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의무부과 검토 등 법·제도 정비

- **(상호평가*)** 범부처 차원에서 상호평가 수검자료 및 대응논리를 마련하고, 현지실사에 대비한 TF 구성 등 시기별 추가적인 대응방안 추진

* ('19년 上) 서면평가 → ('19년 下) 현지실사 → ('20.2월) FATF 총회에서 결과 논의·확정

- **(감독·검사·제재)** 금융회사를 실질적·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“평가·감독정책방향-검사·교육(개선)”이 연계·순환되는 체계*로 개편

* FIU의 감독정책방향이 금융회사 검사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검사운용 관리 강화

- **(심사분석)** ‘전략분석*’ 기능 강화,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, 금융회사의 STR(의심거래보고) 품질제고 등 심사분석 효율화 방안 추진

* 분석 테마를 설정하고 관련된 의심거래보고 유형·패턴을 분석하는 등 심층분석을 수행

□ FIU는 동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, 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FIU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갈 계획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